

만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존경과 애착

미국 출판시장의 활력소

그래픽 노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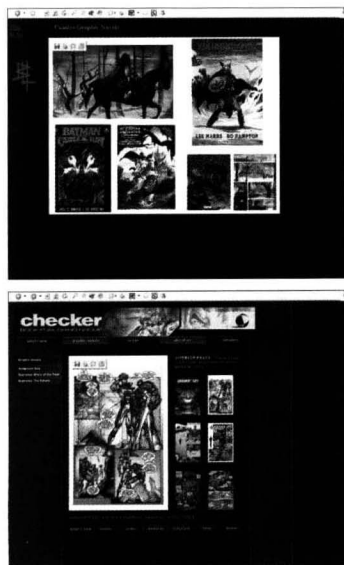
허선

만화의 판매 루트는 서점을 통한 북트레이드 방식과 만화 전문점인 코믹샵을 통한 직접 판매로 나뉜다. <만화 판매에 대한 소매점 가이드 Retailers Guide to Graphic Novels>에 의하면 2002년 북 트레이드와 직접 판매는 각각 6,000만 달러와 5,000만 달러였고 이듬해인 2003년 각각 1억500만 달러와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두 자리 수 판매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 미국만화는 주로 영화와 관련된 책들이 잘 팔리고 있고, 새로운 형식의 얼터네이티브 만화들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만화인 망가는 북트레이드 방식과 직접 판매 두 채널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카테고리로서 만화판매 성장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의 만화출판 시장과 달리 미국의 그래픽 노블(만화)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만화는 만화전문점인 코믹숍에서나 접할 수 있었을 뿐 서점에서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만화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점에서도 만화책 섹션이 따로 마련되고 다루는 종류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만화책 판매액이 2002년 1억1000만 달러에서 2003년 1억65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만화가 미국 출판시장에 활력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듯, 대형출판사들이 속속 만화 장르에 진출하고 있고, 만화전문 출판사들도 나름대로 영역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만화관련 컨벤션들이 성공적으로 열리면서 미국 출판시장에서 만화는 새로이 떠오르는 주요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출판사들의 만화시장 진출

만화의 비약적인 판매성장을 가속화시킨 것은 그동안 일반 출판물만을 다루던 대형출판사들의 만화시장 진출이었다. 먼저, 랜덤하우스의 공상과학분야를 출판하는 '텔레비क्स'는 올해부터 일본 최대의 망가 출판사인 고단샤와 공동 투자로 일본 망가를 출간하고 있다. 올해 총 12권 출간을 계획으로 4권이 이미 출시되었고, 나머지 8권은 곧 나올 예정이다. 후발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닐센 북스캔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 그래픽 노블.

☞ 지난 5월 '닐센 북스캔 만화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1,2위를 차지한 《Tsubasa》《Neg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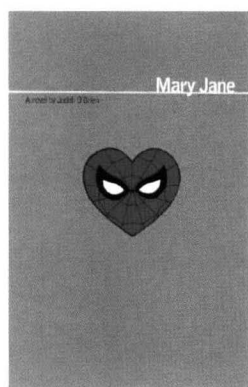
☞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메리제인》.

텔레이에서 발간한 4개의 만화책 중 《Tsubasa》는 1위를 《Negima》는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2권, 《XXXHolic》은 6위를 《Gundam Seed》는 12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초판 4만4,000부와 4만2,000부 인쇄한 《Tsubasa》와 《Negima》는 곧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리포터 시리즈' 등을 출판한 스칼라스틱은 내년 봄 '그래픽스 Graphix' 라는 이름으로 만화를 출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그래픽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프 스미스의 환상탐험 이야기 《본 Bone》인데, 이 작품은 만화세계의 최고라고 불리는 아이즈너상과 할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원래는 흑백으로 디자인되었으나, 9권의 시리즈물은 새로운 표지와 함께 6개월마다 컬러로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오니 프레스>에서 인기 시리즈물 《우울한 월요일 Blue Monday》과 《스쿠터 소녀들 Scooter Girls》를 발표했던 차나 크립스톤-메이저는 여중고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만가풍의 퀸 비 Queen Bee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품은 초능력을 지닌 자매들을 주인공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 2005년에는 앤 M.마틴의 베스트셀링 '베이비시터 그룹 시리즈'를 작가라이나 텔레마이어가 각색한 만화가 선보일 예정이다.

만화출판사들의 영역 확대

그동안 전문적으로 만화출판만을 고집하던 출판사들은 그 영역을 소설이나 아트북으로 늘려가거나 다른 출판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화관련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마블코믹스는 작년 《스파이더 맨》의 대성공에 이어 스파이더 맨의 여자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메리 제인 Mary Jane》을 출간하였다. 로맨스 작가 주디스 오브리언에 의해 씌어진 이 작품은 스파이더 맨의 분신 피터 파커와 메리 제인이 십대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0대 소녀들의 취향을 잘 반영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마블코믹스의 경영자 빌 제마스는 만화의 소설화를 "영화나 TV의 줄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즉 소설의 출간이야말로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에도 《메리 제인 2》를 시작으로, 늑대인간 환상소설 《웨폰 X》, 중학생 독자들을 위한 《스파이더 맨》이 연이어 출간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다크호오스코믹스의 M프레스와 DH프레스의 론칭은 만화시장의 확대를 내다보는 한 발자국 앞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M프레스는 전혀 새로운 방향, 즉 그림이 없는 소설과 비소설을 다룰 예정이다. 다크호오스의 비즈니스 개발 부 부사장 마이클 마틴은 "M프레스는 만화의 저작권이나 영화에 대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히고 있다. 즉, 만화출판 저작권은 물론 그를 토대로 한 소설 또한 함께 소유한다면 그만큼 더 비즈니스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헬보이의 아트 The Art of Hellboy》 《일렉트릭 프랭켄스타인 The Electric Frankenstein》 등의 아트북을 출간하기도 한 다크호오스는 만화출판사로 알려진 탓에 아트북의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한다. 아트북 전문출판사 DH프레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돈 브러스의 《스토리보드 의 아트 The Art of Storyboard》와 대형 일러스트 책 《콩, 해골산의 왕 Kong, King of Skull Mountain》 짐 실크의 《변칙적인 아트 The Illegitimate Art》 등 올가을에 3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DC코믹스의 경우는 새로운 출판사의 론칭보다는 파트너십을 통한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텔레이북스는 DC코믹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DC코믹스의 인기작 '배트맨 시리즈'와 곧 상영될 영화 <캣우먼 Catwoman>과 <배트맨의 출현 Batman Begins>을 소설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개의 배트맨 소설은 2005년 봄에 출시될 예정이고, 캣우먼은 6월부터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텔레이의 미디어 프로젝트 편집장 스티브 사펠도 배트맨 소설은 "그동안 만화나 영화에서 그려진 것보다 배트맨의 세계를 더욱더 자세히 파헤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구라는 기회를 통해 그의 어둡고 드라마틱한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 허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화관련 다양한 컨벤션들

35년 전 몇몇의 만화마니아가 만화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 시작된 '샌 디에고 코믹콘 Comic-Con International San Diego'은 코믹관련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컨벤션이다. 만화출판사, 작가, 지망생 그리고 팬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만화세계의 축제의 장이며 만화뿐 아니라, 비디오 게임, 만화영화, 영화 등도 함께 선보여 한 곳에서 수많은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의 장이기도 하다. 작년 행사에선 60달러라는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약 7만5,000명의 관람객이 이 전시회를 찾았는데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만화팬으로 행사는 연일 북적거렸다. 특히나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눈에 띄었는데 이는 연령과 계층을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독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미 작년 예약률의 20퍼센트를 초과한 상태라고 한다. 올해는 특히 헬보이의 창시자 마이크 미구놀라에서부터 고전만화의 대가 윌 아이즈너, 피너츠의 창시자 찰스 슐츠의 미망인 진 슐츠가 행사의 게스트로 등장하고, 90번째 생일을 맞은 전설적인 만화제작자 밥 크래프트와 75회 탄생을 맞는 '뽀빠이'와 '틴틴' 그리고 20회를 맞이하는 재미있는 동물 사무라이 이야기 '우사기 요짐보'에 세인의 관심이 모여질 예정이다.



이번 해로 11번째를 맞이한 APE(Alternative Press Expo)는 아트 만화를 다루는 소형 만화출판사, 자가출판사 그리고 카툰니스트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보급판 컬렉션으로 시작한 무명의 카툰니스트들이 이제는 APE와 함

께 성장하여 고급 양장본 컬렉션을 출간하는 일류 카툰니스트가 된 점과 아트와 만화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많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디 만화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의 만화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만화를 하나의 창의적 예술의 세계로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존경과 애착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만화시장의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코믹숍에 가서 서로의 취향에 따라 만화를 고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엄마와 딸이 컨벤션에 와서 각자 좋아하는 작가에게 사인받은 것을 자랑하는 모습에서, 만화는 한 번 빌려보고 잊혀지는 책이 아니라 작가의 작품세계가 담겨져 있는 문화적 산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네 환경에선 외적인 만화출판산업의 팽창보다는 만화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가 우선이 아닐까 싶다. *******

COMIC-CON INTERNATIONAL

COMIC-CON

WHAT'S NEW
 REGIONAL DEALERS
 PROFESSIONAL EXHIBITORS
 PREVIEW NIGHT
 PROGRAMMING
 ELSIEE AWARDS
 DUBBEL AWARDS
 SCHEDULE
 SCHEDULE BOOK
 ARTIST'S ALLEY
 ART AUCTION
 ART SHOW
 AUTOGRAPHS
 PORTFOLIO REV.
 FILM FESTIVAL
 FANS
 ANIME
 GAMING
 REGISTRATION
 HOTELS
 PARKING
 TRANSPORTATION
 RETAILERS
 VOLUNTEERS
 DISABLED SERV.
 BLOOD DRIVE
 CHILD CARE
 LOGO ANIME

BREAKING NEWS...
Comic-Con International announces online registration!

Now you can register online for your Comic-Con International 2004 membership! That's right... in one quick process you can purchase your 4-day or 3-day memberships to this year's big event. Your badges will be waiting for you to pick up onsite at the San Diego Convention Center. Just click on the graphic to the right to REGISTER ONLINE!

REGISTER ONLINE

JUST ADDED!

- Shuttle Routes and Schedule
- Spatial Trading Schedule
- Film Schedule (Registered Attendees Login Only)
- Autos, Autographs and Portfolio Review Schedules
- Artist Alley 1 settings
- EXHIBIT HALL MAP and EXHIBITOR LIST with Booth Numbers!

We regret to announce that special guest Jim Warren will not be able to attend Comic-Con International this year.

The STARS are Coming to Comic-Con International 2004!

Comic-Con

FAQ:

WHERE:
 San Diego Convention Center,
 111 Harbor Drive,
 San Diego

WHEN:
 July 22-25
PREVIEW NIGHT:
 July 21

Exhibit Hall Open:
Preview Night
Wed., July 21:
 5:00-8:00pm
 (Pre-registered 4-day attendees & industry only)

Thursday, July 22,
Friday, July 23,
Saturday, July 24:
 10am-7pm*

Sunday, July 25:
 10am-5pm

(*nighttime program Thursday, Saturday, night 1)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학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